

# <짱구는 못말려>에서 배워야 할 두세가지 것들

정준영 만화평론가

『주간만화』, 『빅점프』, 『미스터 블루』등의 성인용 만화잡지에서 가히 폭발적이라 할 대중적 인기를 모으면서 연재되고 있는 <짱구는 못말려>등의 일본만화. 이들 일본만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만화 평론가 정준영씨가 최초로 일본만화에 대한 작품비평을 시도한다.

1995년은 우리 만화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주관하여 '서울 국제만화전'이 열리고 만화산업이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해였기 때문이다. 몇편의 우리 만화영화가 개봉됨으로써 만화 중흥의 희망을 북돋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행사에 앞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어찌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는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그해 초반 비슷한 시기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갑자기 성인만화를 표방하는 3종의 만화잡지가 등장한 일이다. 명시적으로 성인만화를 표방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 만화가 성인을 독자층으로 포섭하려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한 그를 통해 만화가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침이 심한 우리 만화잡지계의 현실 속에서 그 잡지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까지 1년여를 끌어올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밝은 빛 아래 확보하게 된 일본만화

그런데 이들 잡지의 출간은 의도적이지만 명시적으로 표명되지는 않은 또 다른 사회적 효과를 낳게 된다. 이들 잡지의 출간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일본만화에 대한 공식화가 한걸음 더 진전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학교 앞 문방구나 동네

서점 등 준공식적인 유통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일본만화들이 이제는 좀 더 공식적인 유통시장으로 밀려들어서 밝은 빛 아래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들 잡지에 실린 일본만화들은 원작자와 판권을 표시하는 등 일본만화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더욱 그 사회적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대담한 행위의 뒤에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명분이 있다. 이른바 잘 된 일본만화를 소개하여 우리 만화에 대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겠다는 수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사 뒤에 깔려 있는 실제 목적이 질, 양에서 부족한 국내 만화계의 현실을 돌파하고 안정된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짱구는 못말려〉의 한 장면 : 대중적 인기를 모으면서 공공연하게 우리 대중문화의 장애 편입된 일본만화. 이제 일본문화 수입이나 반대내의 단순구도를 떠날 때다. 일본만화 작품에도 비평적 조명을 비춰 우리 만화의 자양분을 얻어야 한다.

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판은 새롭게 짜여졌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그 새로운 판에 적절히 적용하여 선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 적용과 선용의 방식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이들 잡지의 명분대로 이를 일본만화를 알고 분석하는 계기로 삼는 일일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우리 만화에 통용돼 왔던 모방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그 풍토를 일신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일본만화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성인성에 대한 재고로 잡는다. 이는 이들 잡지들이 성인만화를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만화에서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성인만화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에서 무엇을 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담을

것인가가 문제다. 다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의 성인만화는 청소년만화의 연장선상에서 성인을 단지 좀 더 나이 든 청소년으로만 보고 이 양적인 나이들이 열어나 준 사회적 제한의 약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화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일본만화들을 보며 나는 서울문화사의 『빅 점프』가 연재하고 있는 요시토 우수이(Yoshito Usui)의 〈짱구는 못말려〉에 특히 주목한다. 물론 이 만화를 일본만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는 것에는 당장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짱구는 못말려〉는 우리 만화의 가장 대중적 범주인 장편극화가 아니다. 따라서 짧은 단편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명랑만화(유머만화)로 분류될 수 있는 〈짱구는 못말려〉를 장르가 다른 우리 만화와 단순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짱구는 못말려〉를 보면 명랑만화에 걸맞게 흔히 일본만화의 장점으로 일컫고 있는 묘사의 치밀함을 별로 찾아볼 수 없으며 과장된 표현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서 〈짱구는 못말려〉가 만화를 구성해가는 방식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길이와 장르에 무관하게 우리가 일본만화를 보면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기도 하다.

### 유쾌한 성의 표현

〈짱구는 못말려〉에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이 만화가 성을 간접화하는 방식이다. 왜 성인만화에서 성을 간접화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오히려 청소년만화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노골적인 성 묘사가 성인만화의 특권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의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직설적인 성의 묘사가 성인독자를 끌어들이는 좋은 방안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다. 한편으로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더욱 사회화된 존재이며 따라서 직접적인 감정의 자극에 좀더 둔감한 존재고, 다른 한편으로 묘사력만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다른 매체(비디오나 사진 등)에 비해 만화는 훨씬 열등한 매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는 성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만화가 단기적으로는 다소의 효과를 지닐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성인독자층을 구축하기에는 오히려 역



〈대륙의 꿈〉의 한 장면 : 한국만화의 고질적 문제인 개연성의 결여가 눈에 확 들어온다. 도대체 지금과 같은 신식민주의 시대에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전쟁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까.

효과만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짱구는 못말려〉를 살펴보자. 아직 5살밖에 안되는 남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짱구는 못말려〉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성이며 이것이 이 만화가 성인만화잡지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이 만화에서 성은 항상 짱구를 매개로 하여 등장하기 때문에 결코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법이 없다. 성적 내용으로 충만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짱구는 못말려〉가 유풍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을 이룬다.

당연히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이미 〈짱구는 못말려〉가 일본만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똑같은 시도를 한다면 아마 어린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하여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짱구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다. 말하자면 그의 행위는 억지

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연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굳이 프로이드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5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안다. 〈짱구는 못말려〉는 단지 그 나이의 남자아이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음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자연스럽게 성인들의 성과 연결시킨 것일 뿐이다. 서로 차원이 다른 얘기를 슬쩍 병치시킴으로써 무리하지 않고도 성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끌고가는 이 술책을 통해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다.

#### 한국만화, 개연성의 결여가 문제다

이처럼 자연스러움을 주는 요소로서의 개연성에 대한 높은 배려는 많은 일본만화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이루면서 성인독자를 흡인할 수 있는 주된 기반이 된다. 〈짱구는 못말려〉가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일상의 이야기를 모델로 삼음으로써다. 실상 〈짱구는 못말려〉에서 성 자체가 주제가 되는 일은 한번도 없다. 만화는 일상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만 필요한 순간에 약간의 성적 비틀만 가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만화에서 즐겨 사용되듯이 굳이 거창하게 새로운 상황을 창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이렇게면 같은 잡지에 연재된 〈대륙의 꿈〉을 생각해 보자. 미래 통일한국의 북방진출과 잃어버린 고도의 회복이라는 거창한 상황을 창조하고 있는 이 만화는 불행히도 그것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현세의 〈남별〉이 지니고 있던 최소한의 개연성조차 결여

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과 같은 신식 민주주의의 시대에 영도전쟁이라는 허황된 상황이 어떻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개연성에 대한 강조는 <짱구는 못말려>를 비롯한 많은 일본만화들이 일단 하려고 하는 얘기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성을 도입하기 위한 무리한 상황설정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적 삶은 별로 성적이지 않거나 (에로티시즘을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담고 있는 대중문화와 같이) 단지 간접적으로만 성적일 뿐이다. 그렇다면 성을 직접적으로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성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여기서 일본 만화가 마련해놓은 방법은 뚜렷한 성격의 창조다.

오해하지 말자. 뚜렷한 성격을 창조한다고 하여 개연성의 틀을 벗어나서 성격의 한 측면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자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은 나름대로의 성격은 지니고 있을지 몰라도 결코 개연성이 있는 인물은 아니다. 우리 만화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극단적인 성격에 대한 집착이다. 다시 <짱구는 못말려>로 돌아가보자. 짱구는 그 나이의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노출증이 심한 아이다. 어른들의 몸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런 짱구의 행위 속에서 만화

는 자연스럽게 성적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짱구의 모습이 결코 개연성의 틀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만화가 명랑만화임을 감안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 하거나 성적인 얘기를 할 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가 묘사되는 방식은 자신의 행위나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채 몸을 노출하고 성적인 얘기를 하는 아이의 모습으로서다.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짱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어른들일 뿐이다. 그 대비가 또한 우리를 즐겁게 한다.

물론 지금까지 <짱구는 못말려>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만화의 장점, 특히 성을 다루는 방식이 모든 일본만화에 공통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장 노골적으로 성을 표현하는 만화들이 있으며, 성인만화잡지에 실린 만화 중에서도 우리 만화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화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우리 만화 중에서도 일본만화에 못지 않은 작품들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일본만화와 우리 만화의 비교라는 좁은 틀이 아니라 잘 된 만화에 대한 기준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모처럼 열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만화의 현재에 맡겨진 과제다. ♀



<짱구는 못말려>의 한 장면: 짱구는 노출증이 심한 아이이다. 어른들의 몸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런데 짱구는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의 의미를 모른다. 당혹스러운 사람은 주변의 어른들일 뿐이다. 그래서 짱구의 성(sex)은 유쾌하다.